

포유자돈의 콕시듐 설사



이 재 춘 (한별피그 클리닉)

포유자돈의 설사병으로 대적인 것은 대장균 설사, 그리고 PED, TGE를 들 수 있고 간혹 로타바이러스 감염증과 괴사성 장염을 들 수 있다.

그러나 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콕시듐원충 감염에 의한 설사병이 유행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에는 대장균과의 복합 감염으로 피해가 커지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콕시듐이 문제가 되는 농장의 경우 주로 생후 1주일에서 14일령 사이에 자돈의 설사가 관찰이 되며 그러한 농장의 환돈에 대한 진단 결과는 콕시듐 단독 감염, 또는 대장균과의 혼합감염에 의한 설사로 판명되는 비율이 높다. 최근에는 포유자돈 설사의 원인이 일반 대장균 설사보다 오히려 콕시듐 관련 설사의 발생률이 높아가는 추세로 바뀌어 가고 있는 듯하다.

1. 주요 발생원인

자돈에서 주로 문제되고 있는 콕시듐원충 (*Isospora suis*)에 오염된 농장의 경우 총란은 농장의 도처에 산재하게 되고 특히 모돈의 분변을 통해 분만틀에도 존재하게 된다. 분만틀에 존재하는 콕시듐원충의 총란은 부화하기 적합한 온도 범위가 20°C~37°C 사이이다.

대부분 자돈을 분만하게 되면 보온등을 점등하여 주변 온도가 32°C~35°C 정도 되도록 관리를 해주게 되는데, 이러한 온도 관리가 자돈의 체온 관리에 필수적인 것이지만 총란의 부화를 돕는 데도 일조를 하게 된다. 따라서 콕시듐원충의 총란에 오염된 농장에서는 대부분의 신생분만 자돈이 비교적 쉽게 감염이 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일단 콕시듐 총란에 오염된 농장의 경우라도 관리에 따라서는 임상증상으로 진행되는 것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

콕시듐 설사가 문제되고 있는 농장의 경우 투약에 의한 치료 및 예방도 중요하지만 다음의 요인들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기본이 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전반적으로 불결한 돈사
- 분만틀의 위생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 분만틀이 습기 또는 물기가 많아 축축한 경우
- 분만틀 바닥에 별도의 사료통 없이 입질사료를 뿌려주는 경우
- 포유모돈의 분변에 분만틀이 오염된 경우
- 파리가 많은 경우
- 분만틀의 수세 및 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연속적으로 분만이 이루어 질 때

2. 증상

콕시듐 원충은 자돈뿐만 아니라 모돈에도 감염을 일으킨다. 그러나 자돈에서 설사증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과는 달리 모돈에서는 별 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으며 자연적으로 치유가 된다. 다만 콕시듐 원충을 지속적으로 배설하여 오염원이 되는 것이 문제이다.

■ 생후 7일령~14일령 사이의 자돈 설사가 주증상이다. 발생시기를 넓게 보면 포유자돈의 경우 생후 7일령에서 21일령 까지로 볼 수

콕시듐이 문제가 되는 농장의 경우 주로 생후 1주령에서 14일령 사이에 자돈의 설사가 관찰이 되며 그러한 농장의 환돈에 대한 진단 결과는 콕시듐 단독 감염, 또는 대장균과의 혼합감염에 의한 설사로 판명되는 비율이 높다. 최근에는 포유자돈 설사의 원인이 일반 대장균 설사보다 오히려 콕시듐 관련 설사의 발생률이 높아가는 추세로 바뀌어 가고 있는 듯 하다.

있고 때로는 15주령 까지도 콕시듐 관련 설사를 일으킬 수도 있다.

■ 설사분변은 증세의 심한 정도와 발생시기에 따라 연변에서 수양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며, 색은 노란색에서부터 연초록색으로 나타난다. 간혹 증상이 심한 경우 혈변이 관찰될 수도 있다.

■ 콕시듐설사의 발병시기상 흔히 모돈의 유질 불량에 기인한 설사, 입질사료를 섭취하면서 보이는 설사 증상과 혼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

■ 전체적으로 심한 설사는 아니지만 지속적이고 산발적으로 설사 증상을 보여 정확한 진단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원인을 찾기가 어

려운 경우가 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경미한 설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게 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정상적인 자돈의 경우라면 분만후 이유시까지 설사가 전혀 없어야 하므로 자돈이 설사증상을 보인다면 증세가 경미할 지라도 그 원인을 찾고 제거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 그외에 설사로 인한 탈수와 기아, 그리고 위축된 자돈이 증가하게 된다.

3. 진단

대략 자돈의 설사 발생시기가 생후 7일령~14일령을 전후하여 복 단위로 지속적으로 발생이 될 경우, 그리고 이러한 설사가 일반적인 설사 치료제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경우 제일 먼저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모돈의 유즙에 의한 설사와 바이러스성 설사를 제외하고는 콕시듐감염에 의한 설사이다.

그러나 대장균에 의한 설사도 이 시기에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실험실 검사로 확진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 설사하는 자돈의 설사변 보다는 설사에서 회복이 되어가는 자돈의 분변을 가검물로 취해야 한다.

■ 가장 좋은 가검물은 폐사하거나 설사가 회복된 자돈 말고 현재 설사가 진행 중인 살아있는 자돈인데 이러한 자돈을 실험실로 보내면 소장의 조직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

4. 치료

자돈의 콕시듐증이 문제되고 있는 농장의

경우 정확한 진단과 그에 따른 적절한 투약, 그리고 관리의 개선이 이루어지면 별로 어렵지 않게 컨트롤이 가능한 것으로 실제 여러 농장에서의 사례가 관찰이 되었다. 따라서 자돈의 설사가 문제되고 있는 농장의 경우 일단은 대장균설사, TGE, PED, 로타바이러스등 바이러스의 감염에 기인하는 설사와의 감별 진단이 필요하고 진단 결과가 콕시듐감염증으로 나올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되면 그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으며 또한 임상증상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

- 앞서 열거하였던 발생 요인들을 가급적 제거해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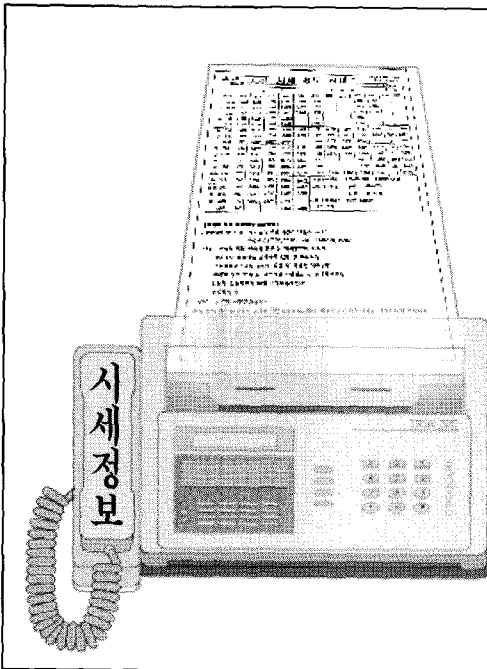
- 치료는 콕시듐 원충이 소장벽을 침입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따라서 이미 설사가 발생한 자돈은 신속한 투약이 필요하고 아직 일령이 7일령 이내로 설사 증상이 없는 자돈에게는 5일령에 투약을 하게 되면 설사증상이 비교적 쉽게 치료가 가능하다.



- 모돈에게도 분만틀 입식때부터 이유시 까지 항콕시듐제(암프롤리움 프리믹스를 사료 톤당 1kg) 또는 썰파디미딘(사료 톤당 100g)을 투약하면 충란의 배설을 줄일 수 있다.

- 5일령 자돈에 지속성 썰파제를 주사한다.

- 생후 5일령에 항콕시듐제(바이코신)를 1회 투약한다. 증상이 완벽히 사라지지 않는다면 1일 간격으로 한번 더 경구 투약한다. **양돈**



팩스 있으십니까? 한 장 받아보시지요.

- ❖ 매일의 전국 양돈 시세와 주요 속보뉴스가!
- ❖ 매일 오후 6시 당신의 팩스로... 대한양돈협회가 만듭니다.
- ❖ 매일 시세 알아보는 전화요금보다 저렴한 이용료 (1년에 회원 5만원/비회원 10만원...)

문의처 대한양돈협회 지도팀
02) 571-9751/5